

골목상권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전주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2000억원으로 확대... 1350억원 상반기 집중 발행

전주시가 최근 혼란한 정치 상황과 내수부진 등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집중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정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물량을 설명절을 맞아 확대 발행하였고, 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해마다 추진해온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시는 국비 미편성 및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당초 올해 전주사랑상품권을 1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 규모를

2000억 원까지 늘리고, 이 중 1,35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발행했다. 또, 국비 편성 및 도비 추가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를 더욱 늘려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힘겨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드림축제 △동네슈퍼(나들가게) 공동세일전 등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글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 6~10등급 및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3년간 대출 이자를 연 3% 지원

하게 된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소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시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경우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주 희망터드림 특별보증 및 안심연장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노련우산 공제 가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흔들림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시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당

초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에서 '2000㎡ 이내 15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등으로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주형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기능개선과 고도화를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인쿠폰과 각종 이벤트 추진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설 명절 음식꾸러미 나눔 행사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홀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행사를 펼쳤다.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60여명은 떡국떡과 과일, 강정 등을 담은 꾸러미를 준비해 관내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설맞이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장애 등으로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진행하였으며,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황의숙 회장은 "명절이 되면 홀로 계시는 분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을 드시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밑반찬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봉사현장을 찾아 봉사단을 격려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펴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매우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쳐주셨다"며 "설 연휴기간 소외된 이웃 없이 촘촘하게 살펴서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1998년에 창단된 봉사단체로 매월 밑반찬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 이번 설에도 교통약자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길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설공단, 설맞이 교통약자 성묘길 이동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이번 설에도 교통약자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길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지콜'은 20일 부터 24일까지 5일간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특장 콜택시를 지원해 휠체어 장애인 1명을 포함한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다.

효자공인 모지와 전주시내 추모시설을 운행하며, 왕복 이용 요금은 2000원이다.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접수하며, 이지콜 센터(063-271-2727)에 전화로 신

청하면 된다.

공단은 안전하고 친절할 성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지콜 전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지콜 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특장 콜택시 63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임차 택시 30대, 순환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해 특장 콜택시를 2대 증차하고, 노후 차량도 10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민 대상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확대 운영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청 민원실서 1대1 상담

전주시가 그동안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를 올해부터는 모든 전주시민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기로 했다.

시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상담 대상이 모든 시민으로 확대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



전주시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전세금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 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 상담(063-281-2136)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전주시 누리집에 '온라인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개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매주 화요일 상담사를 통해 유선으로 받을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청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르신 등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조촌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쌀 기부

전주시 덕진구 조촌새마을금고(이사장 유상수)는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송해인)를 찾아 사랑의 줌도리쌀 840kg(20kg 42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조촌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상수 조촌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송해인 여의동장은 "조촌새마을금고 임직원,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물품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부안
Buan

고창
Gochang | 高敞

영광
Yeonggwang

KORAIL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범국민 서명운동

2025. 1. 31. 까지

*서해안 철도 :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철도 교통망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고창군 홈페이지
고창군 읍면사무소
주요 관광지, 고창군청